

내용 및 목차

1. '추세' 및 '추세선' & '지지선' 과 '저항선'
2. 이동평균선, (이평선의) 정배열 및 역배열, 골든 크로스 & 데드 크로스
3. 패턴 분석 기법(이중천정, 이중바닥, 헤드 앤 쇼울더, 삼각형, 깃발형, 췌기형 등)
4. 시장특성 분석법(RSI, MACD 등 보조지표에 대한 이해)
5. 엘리엇 파동이론
  - 기본적인 파동
  - 파동이론의 절대불가침 법칙(Golden rules)
  - 파동변화의 법칙
  - 파동의 연장
  - 피보나치 수열
  - 피보나치 조정비율
6. 일목균형표
  -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구름대

※ Prologue(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면서)

차트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은 경제지표, 경기상황, 기업 실적, 통화당국의 정책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가격전망을 하는 기초적 분석(통상 Fundamental analysis로 부름)에 비해 다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시장가격 흐름에 비추어 미래를 예측한다는 기본 가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며 펀더멘털 분석에 비해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논리의 전개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에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Market action discounts everything), 가격은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인다(Prices moves in trends),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라는 기본적 가정 하에 이뤄지는 기술적 분석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매수나 매도로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차익실현(profit-taking), 혹은 손절매(loss-cut, 혹은 stop-loss)를 단행할 시점 및 레벨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유용한 분석도구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에서나 그 무엇이든 사거나 팔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차트에 이런저런 선을 긋고 패턴을 살피며 피보나치 조정비율을 따지고 MACD나 RSI 같은 기술적 보조지표로 시장의 과매수(과매도) 여부를 살피며 일목균형표 상의 어떤 선이 돌파되는지, 아니면 구름대 저항이나 지지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더욱 활용할수록 기술적 분석의 위력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1. '추세' 및 '추세선' & '지지선' 과 '저항선'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주가, 금리, 환율, 유가 등등)은 지속적인 등락을 이루면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이하 주가로 설명)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만드는 주가흐름의 방향을 추세라 하며,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이란 곧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고 그 추세에 동참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이라 할 수 있다.

[코스피(KOSPI) 주간차트]



추세선을 제대로 긋는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절반을 이뤘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상승추세선(up-trend line)은 점점 높아지는 '저점' 끼리 연결한 선이며, 하락추세선(down-trend line)은 점점 낮아지는 '고점' 끼리 연결한 선이다. 상승추세선은 그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지지선(support line)' 을 형성하지만 일단 상승추세선을 주가가 하향돌파한 이후에는 기존의 추세선은 '저항선(resistance line)' 으로 그 성격이 변할 때가 많다.(마찬가지로 하락추세선은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올라서기 힘든 저항선 역할을 하지만 일단 돌파되고 나면 이후 지지선의 성격을 띤다)

위 코스피 주간차트에서 추세선은 번호 순서대로 그려진다. 1번 하락추세선이 돌파되면서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었다가 재차 하락하면 2번과 같은 새로운 하락추세선이 가능하다. 3번 추세선의 연장 지점인 [화살표 가]나 6번 추세선의 연장 지점에서 표시된 [화살표 나]는 추세선이 향후 저항선이나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월간, 주간, 일간차트 같은 중장기차트에서나 60분, 30분, 10분 차트 같은 단기차트에서나 모든 기술적 분석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동평균선, (이평선의) 정배열 및 역배열, 골든 크로스 & 데드 크로스

[코스피 일간차트](2006년 8월 3일 현재)



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은 주가의 과거 평균적 수치를 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시장의 추세나 사이클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동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 단순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 지수평활 이동평균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평균을 취하는 기간에 따라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 등이 있다.(거래일 기준으로 따지면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가격흐름의 평균을, 60일선은 3개월 간의 가격흐름을 평균한 셈이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순이동평균 5일선의 예를 들면 최근 5일간의 가격(종가 기준)을 더하여 5로 나눈 수치가 된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단기적 등락을 일정기간 평균하여 살펴봄으로써 시장 저변에 흐르는 추세를 살피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발되었는데, 이동평균선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단기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면 정배열, 그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 중장기 이평선의 아래에 위치하면 역배열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그 당시 시장의 추세가 각각 상승추세, 하락추세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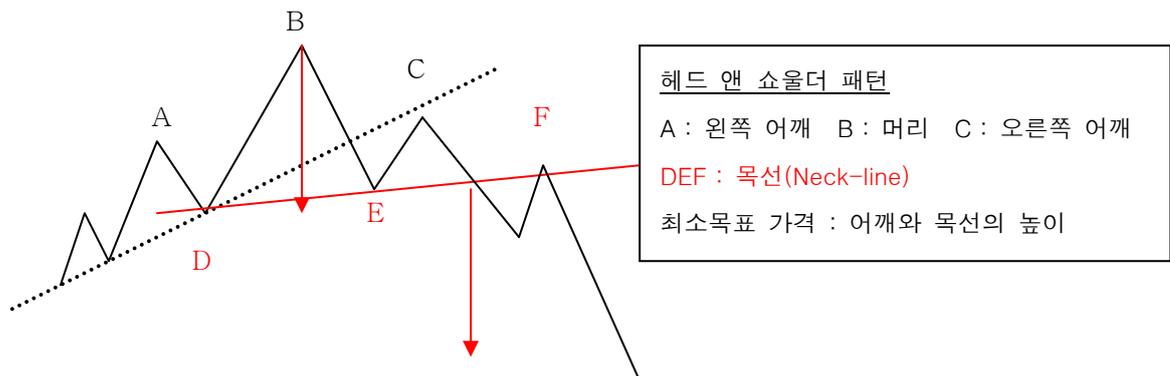
둘째, 위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돌파 하는 경우를 골든 크로스(golden cross)로 부르며 시장의 추세가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보며 그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돌파 할 때에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라 하여 시장의 추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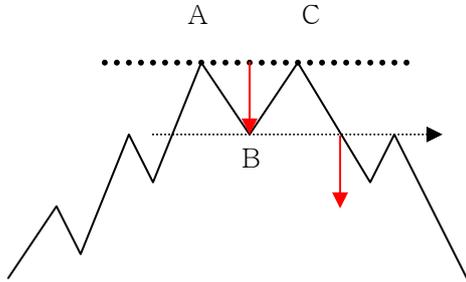
셋째, 이동평균선 자체가 지지선 혹은 저항선 역할을 수행한다. 위 [코스피 일간차트]에서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타고 상승세를 지속하거나 5일선에 머리를 대고 하락세를 이어가는 주가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으며 5일선의 붕괴 이후에는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등이 의미있는 지지선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일의 주가 급락 이후에는 이평선들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는 점도 확인된다. 이러한 이평선의 지지력 혹은 저항력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포지션 진입시점 및 차익실현 혹은 손절매(loss-cut, 또는 stop-loss) 레벨을 짚어내는 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된다.

### 3. 패턴 분석 기법(이중천정, 이중바닥, 헤드 앤 쇼울더, 삼각형, 깃발형, 췌기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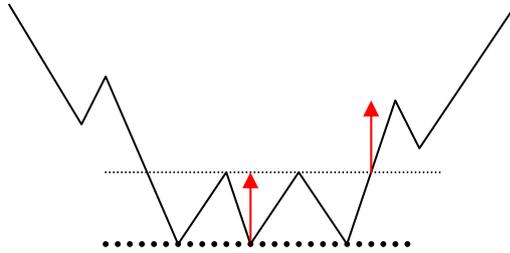
주가 움직임의 특별한 모양(패턴;pattern)을 통해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추세반전형 패턴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추세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는 반면 추세지속형 패턴은 추세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가 해소되면 다시 원래의 추세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임을 예고해 준다.

반전형 패턴으로는 머리어깨형(Head & Shoulder), 이중 천정형(double-top), 이중 바닥형(double-bottom), 삼중 천정형(triple-top), 삼중 바닥형(triple-bottom), V자형, 둥근 천정형(rounding top), 둥근 바닥형(rounding bottom)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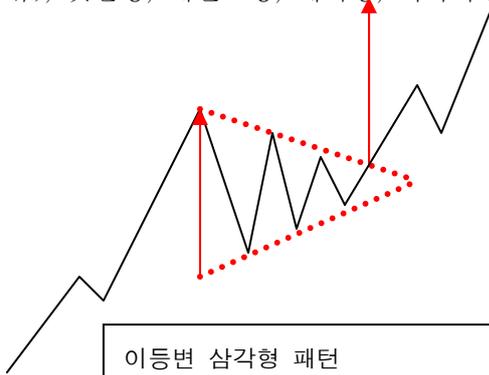


더블 탑(이중 천정) 패턴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의 반전  
 ≡ 트리플 탑(삼중 천정) 패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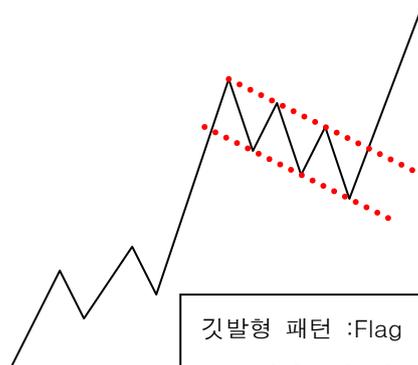


트리플 바텀(삼중 바닥) 패턴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의 반전  
 ≡ 더블 바텀(이중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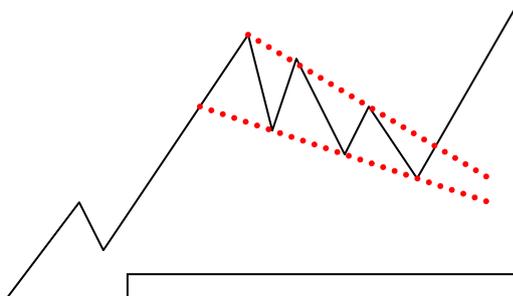
지속형 패턴으로는 삼각형(그 형태에 따라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등으로 분류), 깃발형, 페넌트형, 썰기형, 직사각형 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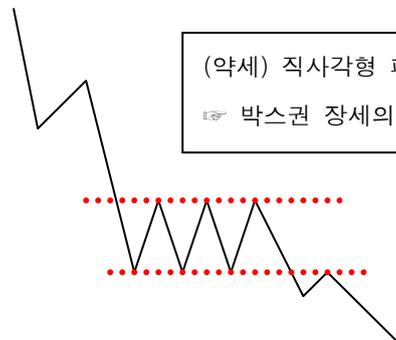
이등변 삼각형 패턴  
 :symmetrical triangle  
 ≡ 목표가격은 삼각형 밑변의 높이



깃발형 패턴 :Flag  
 ≡ 상승추세에서는 아래쪽으로 펼쳐이는 모양



(하락) 썰기형  
 :(Descending) Wedge  
 ≡ 하락추세의 경우에는 상승 썰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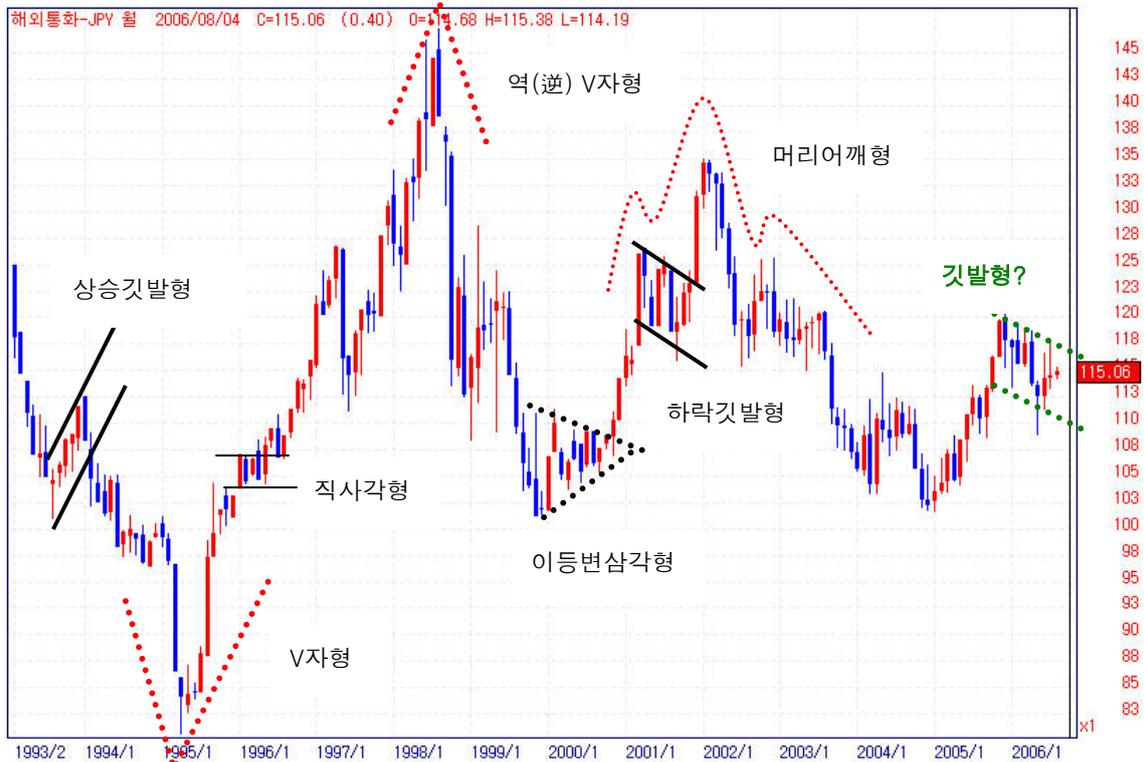


(약세) 직사각형 패턴  
 ≡ 박스권 장세의 경우

지속형 패턴이 생기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강한 추세가 생긴 이후 1차적으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세력과 기존의 추세를 쫓으려는 세력 간의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통상적으로 지속형 패턴으로 분류되는 형태의 가격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달러/엔 주간차트]에서 V자형 및 역V자형의 추세반전형 패턴을 찾아볼 수 있고 하락추세에서의 상승깃발형 및 상승추세에서의 하락깃발형, 그리고 이등변삼각형, 직사각형 패턴 등의 추세지속형 패턴도 확인된다. 2005년 한 해 동안의 달러/엔 강세가 그 해 말 121엔에서 추가상승이 막힌 뒤 다시 달러약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2006년 들어서 보여주는 환율 흐름이 깃발형 패턴으로 인식되기에 기술적으로는 깃발형 완성 이후 달러/엔 환율의 상승세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달러/엔 주간 차트...8월 3일 현재]



패턴분석은 사실상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때로는 만들어지고 있던 패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양상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패턴분석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線;line)의 돌파여부다. 깃발형, 삼각형 등의 패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그러한 패턴을 이루는 선이 돌파될 때 확인된다. 그러나 이따금씩 어느 방향의 선이 돌파되면서 그 쪽으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가 싶다가도 다시 원래의 패턴대로 가격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이론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장이 흘러가지 않기에 이러한 기술적 휩쏘(whipsaw)를 감안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아래 달러/원 일간차트에서는 그러한 기술적 휩쏘의 경우를 확인하고, 갭(gap)의 발생과 그 갭이 채워지는 과정을 관찰하기 바란다. 24시간 시장이 아닌 달러/원 시장에서는 밤 사이 해외변수의 급변으로 인해 전일 가격범위를 벗어난 급등이나 급락출발이 잦은데 이러한 경우를 갭이라 하며 통상 갭은 곧바로 채워지거나 약간의 시간을 두고 채워지기 마련이다. 상당히 증장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강력하고 장기적인 새로운 추세를 유발하는 돌파갭(break-away gap)으로 분류한다.

[달러/원 일간차트 : 8월 3일 현재]



4. 시장특성 분석법(RSI, MACD 등 보조지표에 대한 이해)

시장특성분석법은 현재 시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진단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횡보국면에 접어든 경우이든 간에 시장상황이 과매수권(overbought)이나 과매도권(oversold)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으며, 금융시장의 가격은 오르고 내리는 등락의 과정을 반복하며 간다는 기본적 특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술한 기술적 보조지표가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장에서 가격흐름의 변화시점을 잡아내고자 새로운 지표

가 개발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몇 가지 기술적 보조지표를 정리한다.

(1) 이격도(離隔度, disparity) : 주가가 파동운동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파동을 이용하여 매매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당일의 지수(가격)를 이동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이격도가 100% 이상이면 당일의 지수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상태이고 100% 이하일 때에는 지수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격도가 110% 이상이면 과매수권(과열권)으로 보아 매도시점을 조율하고, 이격도가 90% 이하이면 과매도권(냉각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 매수시점을 찾는 것이 이격도의 활용방법이다.

☞ 이동평균치의 종류와 시장상황에 따라 과매수나 과매도권을 판단하는 이격도의 범위를 조절해 나가면서 적용해야 한다.

(2) RSI(Relative Strength Index) : ‘상대강도지수’ 라는 표현보다는 ‘RSI’ 자체로 더 많이 칭하는 기술적 보조지표로서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RSI = 100 - 100 / (1 + RS)$$

$$RS = (n\text{일 중 상승일의 평균 상승폭}) / (n\text{일 중 하락일의 평균 하락폭})$$

위의 공식에서 n일은 일정기간을 뜻하며 임의의 수를 선택할 수 있다. 창안자인 윌더가 처음에 사용한 일수는 14일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의 공식을 14일의 기간을 사용해 알기 쉽게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RSI = 14\text{일 간의 상승폭 합계} / (14\text{일 간의 상승폭 합계} + 14\text{일 간의 하락폭 합계}) * 100$   
 요약하자면 RSI는 14일 간의 시장가격 변동폭 중에서 14일 간의 시장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표로 표시하고자 한 것이다. 통상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권, 30% 이하이면 과매도권으로 인식되나 기술적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80% 이상, 20% 이하의 범위를 매매신호로 채택할 수 있고,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면 더욱 유용한 추세반전 신호로 간주할 만 하다.

(3) 다이버전스(Divergence) : ‘확산’ 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부터 출발하였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시장지표들이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는 추세전환이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기술적 신호이다. 예를 들면 주가는 오르는 와중에 거래량은 감소하는 현상, 주가는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데도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현상 등으로 기술적 보조지표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가격과 지표의 고점이나 저점이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경우 다이버전스 현상으로 분류된다.

(4)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 기간이 다른 이동평균선 사이의 관계에서 추세변화의 신호를 찾으려는 진동자(오실레이터; oscillator) 지표로서 중장기적 추

세과약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이며 추세반전의 신호로서도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 단기(보통 12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중기(보통 26일) 이동평균선을 차감하여 ‘빠른 MACD선(fast MACD line)’ 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빠른 MACD선을 9일 지수이동평균선으로 다시 작성한 ‘느린 신호선(slow signal line)’ 을 함께 그려 살펴보는 것이 MACD 기법이다. 빠른선이 느린선을 상향돌과 하거나(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전환) 하향돌과 하는 경우(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전환)를 차익실현 및 신규 포지션 구축 시점으로 삼으며, 이 평선의 수렴 이후 ‘큰 장’ 이 열리는 경우가 많듯이 MACD 지표가 0선 근처에서 위 혹은 아래로 방향을 잡을 때도 상당히 의미있는 자세가 펼쳐진다.

(5) 스토캐스틱(Stochastic Oscillator) : 상승추세에서는 최근의 증가가 일정기간 상승범위의 위쪽에 가깝게 형성되고 하락추세 하에서는 증가가 일정기간 하락범위의 아래쪽에 가깝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토캐스틱 지표는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K선과 %D선을 작성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인 진동자 지표의 해석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K = 100[(C - Ln) / (Hn - Ln)]$$

$$\%D = 100 \times (Hm/Lm)$$

C : 최근(마지막) 증가

Hm : m일간의 (C - Ln)의 합계

Ln : 최근 n일 동안의 최저가

Lm : m일간의 (Hn - Ln)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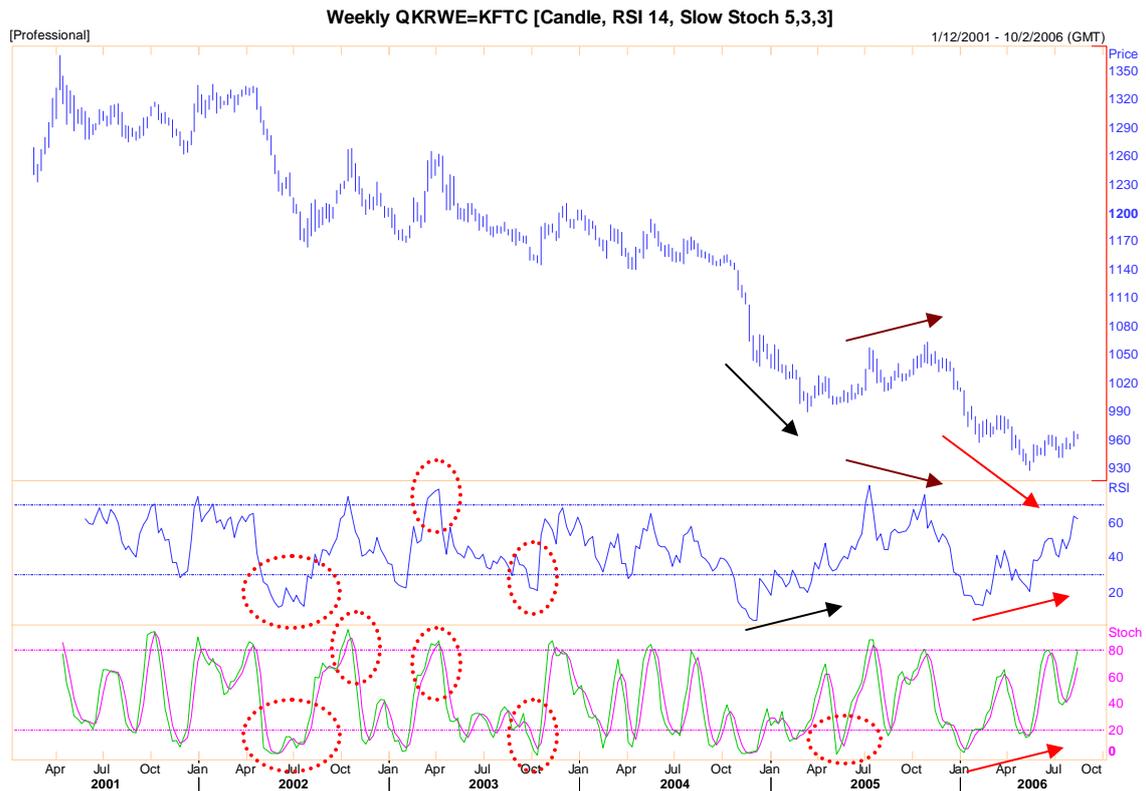
Hn : 최근 n일 동안의 최고가

[일본 니케이 지수 주간차트 : 8월 8일 현재]



위 니케이 지수 주간차트에서 이격도 및 MACD 지표의 활용법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다이버전스 현상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붉은색 화살표는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의 전환을 강력히 시사하는 매수 다이버전스(bullish divergence), 검은색 화살표는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매도 다이버전스(bearish divergence)에 해당한다.

[달러/원 주간차트 : 8일 8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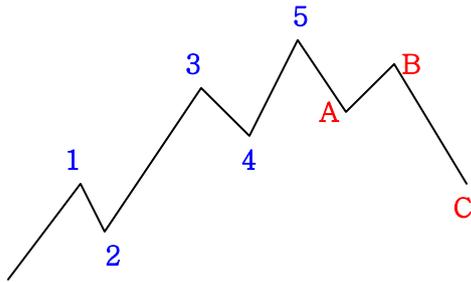
달러/원 주가차트에서는 RSI와 Stochastics 지표를 살펴보았다. 과매수권이나 과매도권 시그널의 유용성과 다이버전스 신호의 강력한 파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전략은 슬한 시행착오와 인내를 요구함을 인식해야 한다. 교과서적 기술적 신호가 실제 시장 가격의 반전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히 시차를 지닐 때가 많아 종종 차트에 의존한 매매가 손실로 이어질 때도 있다. 오랜 경험에 바탕을 둔 자신 나름의 차트를 활용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 5. 엘리어트 파동이론

철도 노동자 출신의 엘리어트(R.N.Elliott)가 과거 75년 동안의 방대한 주가 움직임을 월간, 주간, 일간, 시간, 그리고 30분 단위로까지 세밀히 살펴 연구검토 한 끝에 1934년 경 발표한 파동이론은 금융시장의 가격이 5개의 파동으로 이뤄지는 추세(trend)와 3개의 파동으로 이뤄지는 조정(correctio)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는 기본 개념으로 출발한다. 몇 가지

기본적이고 불변의 법칙 이외에도 술한 예외적 파동법칙이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때로는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 색채도 띄는 이론이지만, 자연의 법칙을 담고있는 듯한 파동이론을 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함으로써 갈수록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는 중이다.

(1) 기본적인 파동(Wa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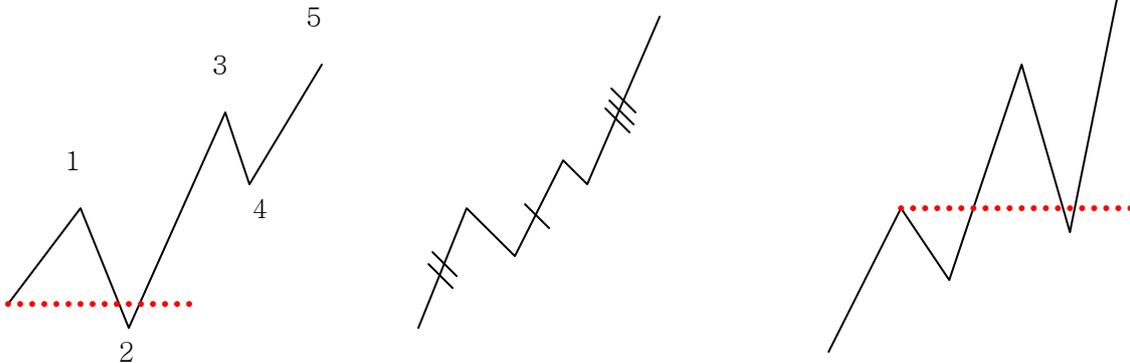
1-2-3-4-5 : 상승추세

- ☞ 1,3,5파는 충격파동(impulse wave)  
... 각 파동은 또 5개의 세부파동으로 구성
- 2,4파는 조정파동(corrective wave)  
... 각 파동은 3개의 세부파동으로 구성
- A-B-C : 조정국면

- ☞ A,C파는 충격파동으로서 5개의 세부파동
- B파는 조정파동으로서 3개의 세부파동

(2) 파동이론의 절대불가침 법칙(Golden rules)

- 첫째,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출발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 둘째, 3번 파동이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 셋째, 4번 파동은 결코 1번 파동과 겹치지 않는다.



(3) 파동변화의 법칙(Rule of alternation) : 조정파동인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그 구조상 반드시 차이가 나와야 한다. 2번 파동이 단순한 형태였다면 4번 파동은 복합적인 형태를 띄게 되며, 반대로 2번 파동이 복합적인 형태라면 4번 파동은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다.

(4) 파동의 연장(Extension) : 충격파동 중의 어느 한 파동의 움직임이 워낙 강력하여 한 충격파동 안에 다시 완전한 형태의 다섯 개의 파동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피보나치 수열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377, 610, ……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처음 소개한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Leonardo Bigollo Fibonacci)가 개발한 수열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어지는 두 숫자를 더해 나가면 그 다음 숫자가 된다.

둘째, 어떤 숫자를 하나 건너 앞의 수로 나누면 그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값은 나눈 숫자의 바로 직전 숫자가 된다.

(예 :  $21 \div 8 \rightarrow$  몫은 2, 나머지는 5       $144 \div 55 \rightarrow$  몫은 2, 나머지는 34)

셋째, 바로 뒤의 숫자를 앞의 숫자로 나누면 그 값은 점점 1.618이라는 숫자에 수렴한다.

(예 :  $3/2=1.50$ ,  $21/13=1.614$ ,  $55/34=1.6176$ ,  $144/89=1.61797$ ,  $987/610=1.6180327$ )

넷째, 한 숫자를 두 개 앞의 숫자로 나누면 그 값은 점점 2.618에 수렴한다.

(예 :  $5/2=2.50$ ,  $21/8=2.625$ ,  $144/55=2.61818$ ,  $610/233=2.618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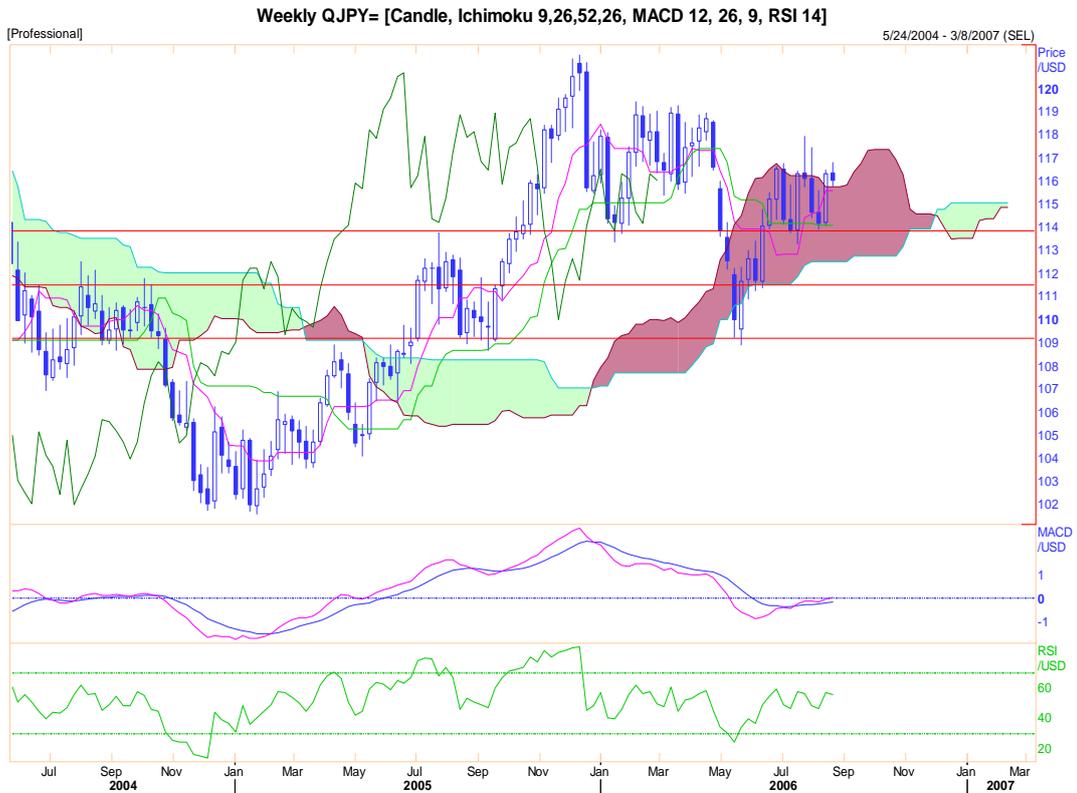
다섯째, 1.618의 역수( $1/1.618$ )는 0.618이며 2.618의 역수( $1/2.618$ )는 0.382가 된다.

☞ 이 이외에도 1.618, 0.618, 2.618, 0.382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begin{array}{cccc}
 2.618 - 1.618 = 1 & 1.618 - 0.618 = 1 & 1 - 0.618 = 0.382 & 2.618 \times 0.382 = 1 \\
 2.618 \times 0.618 = 1.618 & 1.618 \times 0.618 = 1 & 0.618 \times 0.618 = 0.382 & 1.618 \times \\
 1.618 = 2.618 & & &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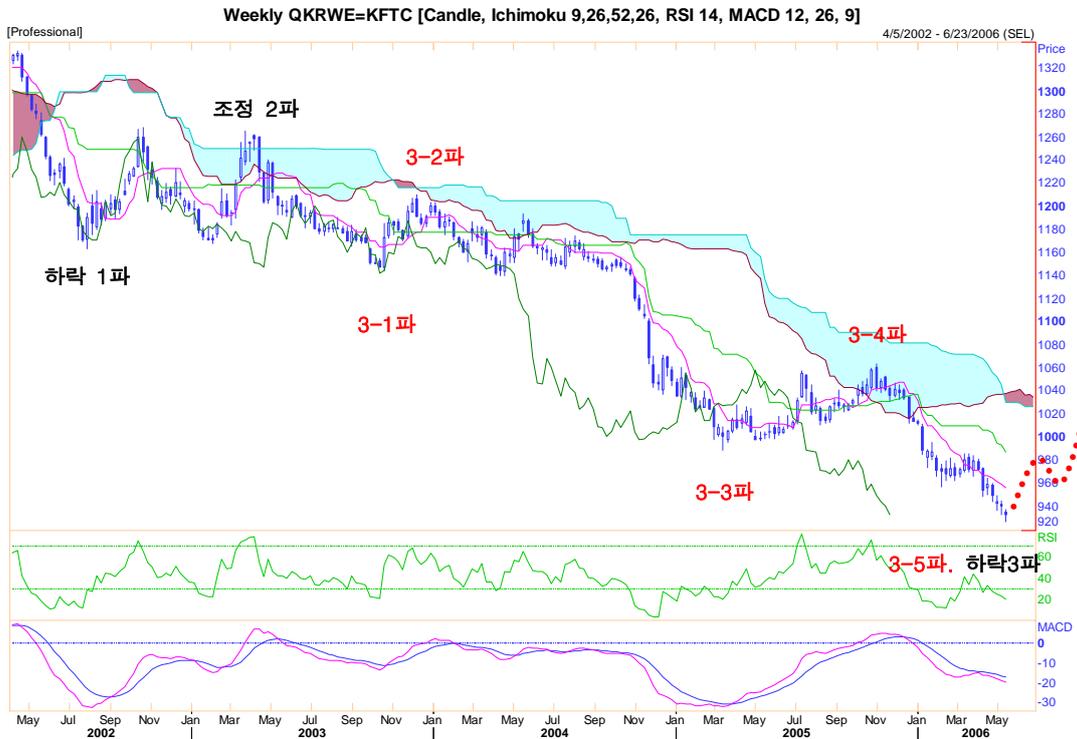
(6) 피보나치 조정비율(Fibonacci retracement) : 엘리엇트는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추세와 조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조정(correction)은 추세로 인한 상승(하락) 폭의 38.2%(0.382), 50.0%(1/2), 그리고 61.8%(0.618) 만큼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시장가격 흐름의 배경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행동에서 역사적, 경험적으로 관찰된 귀납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달러/엔 주간 차트]



※ 위 달러/엔 주간차트에서는 2005년 12월 121엔에서 시작한 하락세가 2006년 초 38.2% 조정레벨에서 1차적으로 지지되었다가 이후 114엔이 다시 무너지면서 109엔(61.8% 조정레벨)까지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파생된 조정비율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참여자들은 포지션 설정 및 차익실현에 있어서 유용한 기술적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

[달러/원 주간 차트]



※ 위 달러/원 주간차트에서도 엘리엇 파동이론에 입각하여 파동을 메겨볼 수 있다. 파동 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1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확인하려면 파동의 사이클이 완성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이지만, 2002년 4월부터 ‘글로벌 달러약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급격한 환율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 간의 하락세가 파동이론에 입각한 흐름을 보여왔기에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나마 파동을 메겨보는 것이다.

여기서 하락 3파는 정부의 달러매수 개입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파동의 연장(extension)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간단한 구조의 지그재그 조정인 3-2파와 위안화 평가절상이라는 재료로 인해 두 개의 지그재그를 연결하는 X파동까지 갖춘 복잡한 구조의 3-4파는 파동변화의 법칙도 충족시킨다.(물론 조정 2파는 하락 1파의 61.8% 조정비율을 맞추는 등 피보나치 조정비율도 정확히 적용되어 오는 중이다)

이처럼 파동이론에 입각하여 시장을 전망하면 2006년 들어 920원대까지 환율이 급락할 당시에 조정 4파로서의 환율의 상당폭 반등을 예상할 수 있어 바닥권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아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 927.30원(위 차트의 오른쪽 끝)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상승세로 돌아 967원까지 오른 뒤 치열한 매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 6. 일목균형표(一目均衡表)

동경지역의 신문에 주식시황을 게재하던 細田悟一(호소다 고이치 : 一目山人, 이찌모꾸 산징은 필명)가 1935년 발표한 독창적 차트분석 기법. 시세가 어떠한 과거를 통해 얼마나 움직이고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파동론, 수준론, 시간론의 세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종합적 기법으로 앞서 달러/엔 및 달러/원 주간차트가 일목균형표로 작성된 차트에 해당한다.

(1) 일목균형표의 작성방법(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구름대 등)

- ◆전환선 : 과거 9일간 고가 및 저가의 중간값을 계산하여 매일의 궤적을 그림
- ◆기준선 : 과거 26일간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계산하여 매일의 궤적을 그림
- ◆선행스팬 상한 :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계산하고 이를 26일 선행시켜 궤적을 그림
- ◆선행스팬 하한 : 과거 52일간의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계산하고 이를 26일 선행시킴
- ☞ 선행스팬의 상한과 하한으로 구름대를 만들고 이를 시세의 저항대로 본다. 즉 가격이 이 저항대 위에 있는 경우에는 하방지지대, 역의 경우에는 상방저항대가 된다.
- ◆후행스팬 : 당일 증가를 26일 후행시킨 것으로 26일 전의 시세와 비교함
- ☞ 후행스팬이 가격대를 (위든 아래든) 돌파하는 시점이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임에 유의

(2)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거래전략(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회하는 경우
- 후행스팬이 26일전 가격을 아래로부터 위로 돌파하고 기준선 방향이 상향이 된 경우
- 일봉이 선행스팬의 저항대를 상회한 경우(즉 구름대 저항을 올라선 경우)
-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올린 달러/엔 및 달러/원 주간차트에서 위와 같은 일목균형표의 특성 및 거래전략을 확인할 수 있음.